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5G, 통신역사 바꿀 절호의 찬스”

LG유플러스 5G 일등 출정식

이길 수밖에 없는 경쟁력 확보
도전정신으로 5G 시장 선점

LG유플러스 하현희 부회장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9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유플러스 5G 일등 출정식'을 개최했다. 하 부회장과 임직원, 전국 대리점 대표 350여명이 참석했다.

하 부회장은 출사표를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 등 3대 핵심 요소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요금은 경쟁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이라며 “게임, 스포츠, 연예, 웹툰, 공연 등 분야에서 국내의 1위 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통해 차원이 다른 AR·VR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하현희 부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5G 일등 출정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LG유플러스

이어서 하 부회장은 5G를 통신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시장 일등을 바꿔 놓겠다고 자신했다.

대리점 대표들에게도 LTE 시대 판매 1위를 경험했다며, 강한 리더십과 도전정신으로 5G 시장 선점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출사표 낭독이 끝나고 ‘유플러스 5G 통신의 일등을 바꿉시다’라는 대붓 드로잉 퍼포먼스를 펼치고, 5G 서비스와 스마트폰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지를 다졌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2019서울모터쇼 개막

주말에만 관람객 25만5000명 신기술·체험형콘텐츠로 ‘흥행’

2017서울모터쇼 대비 10% 증가
불거리·먹거리·즐거거리 ‘풍성’
이달 7일까지 일산 킨텍스서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는 개막일인 29일에 3만4000여 명, 첫 주말인 30일과 31일에 각각 10만1000여 명과 12만 명(잠정)이 찾아 3일만에 약 25만5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모터쇼에 왔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7서울모터쇼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조직위 측은 관람객 수 증가 이유에 대해 2019서울모터쇼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신기술·신제품 등으로의 전환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차, 콘셉트카 등 풍성한 불거리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시승 등 체험형 콘텐츠 ▲문화예술공연, 먹거리, 게임, 안전체험 등 가족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자가용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 많은 서울모터쇼 특징을 반영해 주차공간을 다수 마련했다. 평일에는 킨텍스 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약 1만3000대의 주차공간, 방문자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전시장 인근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약 2만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조직위는 일산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불법 주차차량 단속, 정체 구간 및 주요 진출로 교통 안내 등을 통해 전시장 인근 정체구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킨텍스 앱(App)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서울모터쇼를 즐길 수 있다. 앱에는 실시간 주차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주차비 결제기능과 자가용·대중교통·도보 길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개최된 2019서울모터쇼는 오는 4월 7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다.

/정연우 기자 ywj964@

지문인식·5개 카메라 ‘굿’... 배터리 공유는 ‘글썩’

구기자의 뜯구쓰구

갤럭시S10플러스

후면에 카메라 3개, 다양한 화각 담아 슈퍼스테디로 동영상 흔들림 최소화 배터리 공유, 20분동안 약 1% 늘어

“새로 나온 갤럭시S10플러스, 2시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보시겠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갤럭시S10 체험존 관계자가 다가와 물었다. 그제서야 카페 내부를 살펴보니 한켠에 갤럭시S10플러스가 전시돼 있었다. 신분증을 맡기니 바로 기기를 건네줬다.

◆마음에 드는 카메라 성능

갤럭시S10플러스 후면에는 3개의 카메라가 있다. 1200만 화소의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 카메라, 12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 16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다. 전작인 갤럭시 S9 후면에는 하나의 카메라만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원하는 장면을 담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면서 사진을 찍어야 했다. 갤럭시S10플러스는 3개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다양한 화각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편리했다. 셀피 촬영도 별다른 조작 없이 특별해 보이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갤럭시S10플러스 전면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위치하는데, 갤럭시S10과 동일하게 1000만 화소의 듀얼 픽셀 카메라가 탑재됐고 추가적으로 8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가 탑재됐다.

동영상 촬영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갤럭시S10플러스를 들고 달리면서 동영상을 찍었지만 결과물에선 생각보다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았다.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슈퍼 스테디를 지원하는 덕분이다. 갤럭시S9으로 찍



갤럭시S10플러스. /구서윤 기자

어서 비교해보니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갤럭시S9으로 찍은 영상은 흔들림이 심했다.

◆화면에서 바로 지문인식

갤럭시S10플러스는 후면에 별도의 지문인식 버튼이 없다. S9까지는 지문인식 버튼이 존재했지만 S10 시리즈로 오면서 화면에서 바로 지문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때문이다. 화면을 통한 지문인식은 초음파 지문 스캐너를 디스플레이에 내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존 지문인식 센서는 손에 먼지나 물이 묻은 경우 지문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갤럭시S10플러스의 초음파 센서는 지문 굴곡까지 인식해 이물질이 묻어도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실제로 손가락에 핸드크림이 살짝 묻은 상황에서 기자가 사용 중인 갤럭시S9은 지문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S10플러스는 인식을 했다. 햇빛이 강하거나 영하의 온도에서도 작동한다고 한다.

◆꼭 찬 화면

6.4인치 쿼드HD+ 커브드 다이내믹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S10플러스는 테두리를 최소화해 시원하다는 인상이 들었다. 또한 전면

의 카메라 렌즈 2개를 제외한 스마트폰 전면을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O(O)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갤럭시S10플러스의 가로, 세로 길이와 무게는 74.1×157.6×7.8mm, 175g이다. 색상은 프리즘 화이트·블랙, 세라믹 화이트·블랙 등 4가지로 출시됐다. 세라믹 재질은 프리즘 색상보다 23g 더 무거운 198g이다. 기자가 체험한 프리즘 화이트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였다.

◆배터리 공유 기능은 아쉬워

갤럭시S10 시리즈가 공개됐을 당시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에 눈길이 갔다. 갤럭시S10을 통해서 다른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스마트 워치 등을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인데 스마트폰에선 처음 보는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제 갤럭시S10 사용자에게 ‘배터리 좀 빌려줘’라는 부탁을 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무선 공유 기능을 써본 결과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다. 충전되는 속도가 기자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더뎠기 때문이다.

갤럭시S10플러스는 배터리 잔량이 84%, 배터리를 공유 받을 S9의 배터리 잔량이 68%인 상태에서 배터리 공유 기능을 켜봤다. S10플러스 후면에 S9를 올려두면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공유 기능이 꺼져서 두 스마트폰 모두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됐다.

20분이 지난 후 충전을 시도한 S9의 배터리 잔량은 1% 증가한 69%가 됐다. S10플러스의 배터리 잔량은 78%로 6% 감소했다. S10플러스의 배터리 6%를 써서 S9를 1% 충전시켜 준 셈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전용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 충전하니 20분 후 69%에서 84%로 15% 충전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개막 첫 주말을 맞은 2019서울모터쇼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LG전자 첫 5G 스마트폰 ‘V50 씽큐’ 출시

19일 첫 선... 출고가 119만9000원

LG전자가 오는 19일 자사의 첫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사진)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와 오픈마켓, LG베스트샵 등 자급제 채널을 통해 출시하며, 출고가는 119만9000원이다.

특히 LG전자는 첫 5G 스마트폰 출시를 기념, 5월 말까지 LG V50 씽큐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무상 증정한다. LG 듀얼 스크린의 가격은 21만9000원인데, 고객들은 출시 초반 프로모션을 통해 LG전자가 제시하는 5G 사용자 경험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LG 듀얼 스크린은 여닫을 수 있는 플립 커버 안쪽에 6.2인치 올레드 화면이 장착돼 있다. LG전자가 지난 2015년 출시한 ‘LG V10’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세컨드 스크린’을 화면 바깥으로 끌어내 멀티태스킹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탈착식이라 필요할 때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



동시에 LG 듀얼 스크린으로 출연배우, 줄거리 등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화면 두 개에 게임과 컨트롤러를 각각 구현하거나 인터넷 강의와 학습교재를 동시에 띄워 활용할 수도 있다. 프로선수나 본인의 골프 스윙 영상을 비교하거나 요가강사의 영상을 보면서 올바른 자세를 따라 익히는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LG전자는 LG 듀얼 스크린이 고객들에게 높은 실용성과 활용 범위를 인정받으며 5G 스마트폰에 최적의 액세서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화면이 두 개라 5G로 즐길 수 있는 대용량 콘텐츠나 많은 정보들을 한 눈에 보거나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구서윤 기자